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주택 착공, 12월 급등 후에 하락

[미국 금융]

- JP Morgan: 2025년 거시 전망과 시장 전망
- Bloomberg: 새로운 관세 위협으로 주가 하락세

[트럼프 행정부]

- WSJ: 트럼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25% 또는 그 이상 관세 검토”
- Bloomberg: 연방 정부효율부, “5백50억 불 절감했다” 주장
- NYT: 연방 상무장관 지명자 Howard Lutnick, 최종적으로 인준

[미국 생활]

- WSJ: 항공기 기내 수화물 선반 사용의 에티켓

[한국 반덤핑]

- Bloomberg: 한국 정부, 중국과 일본 철강에 반덤핑 조치 검토

[오일]

- Bloomberg: 석유 공급 불확실성 확산으로 상승세 지속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니콜라, 자산 매각 계획으로 파산 신청
- Bloomberg: 우버와 리프트, 요금 7.2% 인상으로 수요 감소 우려
- Bloomberg: Hims & Hers, 가정용 혈액 검사 분야로 사업 확장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Housing Starts Fall in Broad Pullback After December Surge

미 주택 착공, 12월 급등 후에 하락

- 높은 미 모기지율과 판매되지 않은 주택 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월 주택 착공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모두 줄었다.
- 수요일 관련 정부 통계에 따르면 신규 주택 건설이 12월에는 거의 16%나 급등한 후 1월 들어서는 9.8% 줄어든 연 1백 37만채를 기록했다.
- 단독주택 착공은 8.4% 줄어든 연 99만 3천채, 다가구 주택 착공은 13.5%나 줄어든 37만 3천채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JP Morgan: 2025 is a year to be an investor, not an allocator 2025년 거시 전망과 시장 전망

- 미국의 예외주의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미국의 통화 정책 등 경제는 견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장은 잠재적인 경제 둔화와 연준의 신중한 통화 정책을 저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미 재정 적자는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 감세 등 미국의 재정 팽창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
- 지난 11 미 대선 이래 20 페이스 포인트 높은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10년물 금리는 현재 범위를 유지하다가 올해에 4.55%로 끝날 전망이다.
-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제 완화의 거시적인 경제 여파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제조업은 둔화하기 시작하고 무역정책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기 힘든 상황이다.
- 이번 회의의 참가자들은 금융 시장의 높은 가치평가와 미국 증시에 대한 지나친 의존, 과밀하고 복잡한 트레이더 거래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현재 환경에서 채권은 가치 저장의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6대 4의 포트폴리오 배분에서 채권은 안정된 역할을 하고 있다. 머니마켓 펀드와 환매조건부채권(Repo)으로의 강력한 유입은 달러가 변동성을 줄이는, 이른바 현금 보존의 역할을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유럽에 대한 과도한 비관주의 상황에서 달러 강세를 따르는 것은 신중치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진행되면 달러는 하락 위험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은 낮은 실업률, 높은 소비자 저축, 에너지 비용 감소 등 유럽 경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다.
- 이머징 시장에서 아르헨티나는 두드러지고, 멕시코와 중국은 회복력과 정책적인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 대통령은 미 관세 정책에 실용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중국은 적극적인 국내 조치를 하고 있다.
- 사모 융자나 민간 대출은 계속 증가하겠지만 수익률 우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사모 또는 민간 신용이나 대출이 자산 클래스로서 성장하는데 우려되는 상황들을 볼 수 있다. 즉, 유동성 검토 요인, 높은 부채 상환 부담 그리고 언더라이팅(대출 등에서 위험 평가와 승인)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JP Morgan 기사

Bloomberg: Stocks Decline Amid Fresh Round of Tariff Threats

새로운 관세 위협으로 주가 하락세

- 트럼프가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5% 관세는 빠르면 4월 2일에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부 투자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세 발언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을 더 신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연준의 지난번 회의 의사록이 오늘 오후 2시 나올 예정인데, 기본 기조는 금리 인하에 신중하자는 입장일 수 있다는 예측이다.
- 현재 S&P 500은 0.11%, 나스닥은 0.14% 하락, 다우존스는 0.4% 하락 중이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06% 줄어든 4.54%를 유지하고 있다.
-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0.1% 상승했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자 영국 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줄였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

WSJ: Trump Floats 25% Tariffs on Autos, Chips, Pharmaceuticals 트럼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25% 또는 그 이상 관세 검토”

- 트럼프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 25% 또는 그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부과율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또한 그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그들이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 기간별로 유예 기간을 주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관세율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 한편, 그는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그리고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 관련하여 연방 상무부에 4월 1일까지 시행 검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

WSJ 기사

Bloomberg: DOGE Says It's Saved \$55 Billion; Data Show Much Less 연방 정부효율부, “5백50억 불 절감했다” 주장

- 일론 머스트가 이끄는 연방 정부효율부는 현재까지 연방 지출에서 5백50억 불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웹사이트는 절감 규모를 1백66억 불만 표기하고 있는 상태다.

- 트럼프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는 정부효율부가 최대한 투명성을 보이며 모든 조치들을 완전히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Bloomberg 기사

NYT: Senate Confirms Howard Lutnick as Commerce Secretary 연방 상무장관 지명자 Howard Lutnick, 최종적으로 인준

- 연방 상원은 연방 상무장관 지명자인 Howard Lutnick을 표결 51대 45로 인준했다. 이에 따라 그가 앞으로 트럼프가 주도하는 관세와 보호주의 정책 의제를 어떤 식으로 시행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Lutnick은 금융서비스 회사인 Cantor Fitzgerald의 책임자였으며 작년에 트럼프의 핵심 경제 자문으로 활동했고 정부 인수팀을 주도했다.
- 그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국제 경쟁에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세 시행, 법인세 감면, 에너지 생산의 확대 등을 주장했다.
- 그는 앞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비즈니스 이익을 방어하고 중국과 같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수출 통제도 감독하게 된다.

NYT 기사

[미국 생활]

WSJ: The Battle for Overhead Bins Is Raging. These Are the Rules to Play By 항공기 기내 수화물 선반 사용의 에티켓

- 자신의 좌석 바로 위에 있는 선반 공간이 자신이 짐을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모든 승객이 공유하는 공간이다. 큰 짐은 선반에, 작은 짐은 좌석 아래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선반에서 다른 승객의 짐을 이동해야 할 경우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른 승객을 배려하기 위해 선반에 짐을 올리기 전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꺼내 두는 것이 좋다. 작은 가방을 미리 준비해 필수 물품을 보관하면 더욱 편리하다.
- 가능하면 자신에게 할당된 수납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승객은 배낭 한 개만 소지하고 있어 선반에 보관했으나, 짐이 많은 승객이나 승무원의 요청으로 좌석 아래에 두도록 요구받아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WSJ 기사

[한국 반덤핑]

Bloomberg: South Korea Mulls Anti-Dumping Measures on Some Steel Products

한국 정부, 중국과 일본 철강에 반덤핑 조치 검토

- 한국 정부는 가격이 싼 외국 철강으로 인해 국내 철강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우려 때문에 중국과 일본산 일부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검토 중이다.
- 통상자원에너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해 중국 및 일본산 열연강 철강 반덤핑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한국 철강 업체들은 철강 수입으로 국내 철강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 현대 제철은 일본 및 중국산 열연강 철강 수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포스코는 비슷한 이유로 선재(wire-rod)공장을 폐쇄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Bloomberg: Oil Extends Gains as Supply Uncertainties Sprawl Across Market

석유 공급 불확실성 확산으로 상승세 지속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원유 공급 불확실성과 OPEC+의 생산량 증가 연기 가능성 때문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6달러를 넘어서며 3일 연속 상승했다.
- OPEC+는 생산량 증가 계획을 네 번째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G7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 가격 상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 특히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내 운송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수출량이 최대 30%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추진 중이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셰브론(Chevron Corp.)사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출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에너지 시장까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Nikola Files for Bankruptcy With Plans to Sell Assets, Wind Down

니콜라, 자산 매각 계획으로 파산 신청

- 수소 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며 사업 정리 계획을 발표하며, 자산에 대한 법원 감독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니콜라는 약 4,7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한 상태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며, 현재 운행 중인 트럭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은 내년 3월 말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 니콜라의 주가는 프리마켓 거래에서 5.9% 상승한 81.1센트를 기록했으나, 회사는 파산 절차의 결과에 따라 주주들이 상당한 손실 또는 투자금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WSJ 기사

Bloomberg: Uber, Lyft Risk Losing Customers as Fares Jump 7.2%, Report Says

우버와 리프트, 요금 7.2% 인상으로 수요 감소 우려

- 운전기사 데이터 분석 업체인 Gridwise Inc.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버와 리프트의 미국 내 평균 승차 공유 요금이 2024년 전년 대비 7.2% 상승(\$15.99)하면서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예상보다 저조한 총예약액 전망을 발표했고,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다.
- Gridwise에 따르면,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버와 리프트 운전기사들의 주당 평균 수익은 각각 3.4%, 13.9% 감소했다. 반면, 우버는 운전기사들이 승객 탑승 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30 이상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해 양측의 수익 계산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 우버는 개인 상해 변호사들의 소송 남용 때문에 비즈니스 자동차 보험 비용이 상승한 것이 요금 인상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보험 정책 개혁을 위한 광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Hims & Hers Buys Lab to Expand Into At-Home Blood Testing

Hims & Hers, 가정용 혈액 검사 분야로 사업 확장

- Hims & Hers Health Inc.는 가정용 혈액 검사 회사 Sigmund NJ LLC (브랜드명: Trybe Labs)를 인수하며 헬스케어 서비스 확장에 나섰다.
- 가정용 혈액 검사 키트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환자 검사 지원과 맞춤형 치료 및 영양 보충제, 의약품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Hims & Hers는 체중 감량 약품 부족으로 자사의 복제 약품의 수요 급증하며 지난 1년간 주가가 6배 상승한 바 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트럼프 "자동차 관세는 25% 정도...반도체·의약품은 25% 이상"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기업들에 미국에 투자할 시간 주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서 관세가 최소 2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아마 여러분에게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